



GE 라이팅, 완벽한 구형태의 GE LED G110 조명 출시

- 인테리어 기능을 최적화한 볼 타입 LED 전구
- 높은 에너지 효율로 6W, 11W 두 종류 출시

2013년 12월 23일, 서울 - GE 라이팅코리아 (대표이사 김기정)는 높은 에너지 효율과 뛰어난 인테리어 효과를 겸비한 완벽한 구 형태의 GE LED G110 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마치 공 모양을 연상시키는 이 독특한 모양의 볼 타입 조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이 된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은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홈 데코레이션 조명으로 인기가 있다.

LED 광원을 최초로 개발한 GE 라이팅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GE LED G110 는 LED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인 높은 에너지 효율과 탁월한 밝기를 자랑한다. GE LED G110 은 소비전력 6W 와 11W 두 가지 제품으로 출시되며, 11W 의 경우, 빛의 총량을 나타내는 정격광속은 1000lm(루멘)으로, 경쟁사 제품에 비해 탁월하다.

GE 라이팅 코리아 측은 “이제 조명은 단순히 빛을 밝혀 주는 일차적인 역할을 넘어,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인테리어 연출 기능 또한 중요시 된다. 아직 시중에 데코레이션 기능을 가진 신뢰성 높은 LED 조명이 거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GE LED G110 을 출시하게 되었다. GE LED G110 는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낮은 유지 비용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제품” 이라고 밝혔다.

한편, GE 라이팅코리아는 드라이버 일체 타입의 GE MR16 키밍 제품, 카페 전용 COB 타입의 PAR30 등을 선보이며 꾸준히 매장용 LED 조명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4 년도에 계속해서 새로운 LED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GE LED G110 은 조명전문 매장에서 구매 할 수 있으며, 가격은 약 3 만원 대다.

###

GE라이팅은

GE라이팅은 1879년 ‘토마스 에디슨’이 설립한 GE의 모체이다. 에디슨이 세계 최초로 램프를 발명한 이후 130년 동안 다양한 조명제품 개발을 선도해왔다. GE라이팅은 백열램프, 형광램프, 할로겐램프, 고압 방전램프, LED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조명 솔루션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종합 조명 기업이다.

GE라이팅은 크게 LED부문, 조명 부문, 조명기구 부문의 세 부문으로 나뉜다. LED 부문은 건축조명, 산업조명, 디스플레이 조명, 일반조명을 포함하며, 조명 부문은 형광램프, 할로겐램프, 방전램프, 자동차용 램프, 특수 램프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램프류와 점등보조장치인 안정기를 다룬다. 조명기구 부문은 건축용,



산업용, 스포츠용, 도로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GE라이팅의 모든 제품과 솔루션은 6시그마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생산 관리되고 있다.

본사는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 위치하며, 2010년 기준 영업 매출은 약 45억 달러다. 전 세계 3개의 R&D 센터와 60개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8,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CEO는 메리로즈 실베스타 (Maryrose Sylvester)이다.

GE라이팅코리아는

GE라이팅코리아는 1988년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1998년 삼성과의 합작투자법인인 GE 삼성조명(주)을 거쳐 2008년 12월에 GE라이팅코리아로 자리매김하였다. GE라이팅코리아는 GE 라이팅의 60여 개의 글로벌 생산기지에서 생산되는 2만여 종의 조명제품을 한국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조명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한국시장은 물론 GE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문의

GE 라이팅 코리아

권재은 과장 (T: 02-6201-4337)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박도윤 / 조현지 (T: 02-6323-5053, 5074 / HP: 010-3766-0452, 010-9032-8077)